

복음의 역사성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로마서 1 :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절은 짧지만 내용은 많습니다. 그 함축된 내용을 살펴보면,

1. 복음은 구약부터 있었다.
2. 자신이 전하는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은 구약의 약속과 다른 것이 아니다.
3. 구약을 Holy Scripture 로써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복음의 의미부터 잠간 살펴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 가게 하는 소식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만 복음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 전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Person of Christ, Work of Christ 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한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 뿐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하나 뿐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고 하는 바타칸 공회의 결정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요, 거짓 교사나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 복음 즉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은 구약 성경에서 부터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규범으로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자유 주의 신학자인 하르낙은 신구약 성경을 다 한번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구약은 필요가 없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

신약이 없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무엇으로 신앙 생활을 했습니까?

초대 교회엔 구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 바탕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을 바탕으로 하여 입증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복음의 역사성을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이제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I. 복음의 역사성

1. 역사성의 정의

우리는 복음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역사성은, 복음은 역사 안에서 계시되고, 구약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의 구약의 성취입니다. 신구약은 동일하게 한 주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하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의 모형적 자기 계시입니다. 신약은 메시아의 원형적 자기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8 : 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서 예언하는 영이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던 영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은 같은 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며, 통일성과 단일성을 제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맥락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구약에서 예언하시던 성령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른 영이라면 우리는 구약과 우리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성령 안에서 통일성과 단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 :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베드로전서 1 :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 합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 선지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구약 성경의 일치를 아주 중요하게 주장합니다.

로마서 1 : 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 구약 시대에도 이런 복음이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복음은 있었지만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단편적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복음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1 : 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 :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모형은 원형이 아니지만 장차 올 원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원형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대신 하는 모형으로 예수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최초의 복음 즉 원복음(Proto-euangelion)을 기억하고 계세요?

창세기 3 :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He)¹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He)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Genesis 3:15 (KJV)

¹⁵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

Seed : 미주참조¹

히브리 원어에는 여자의 후손이 복수인 집합명사가 아니고 단수 명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도 단수로 받음이 정당하다 합니다.²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뱀의 후손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¹. 여자의 후손을 집합명사로 해석하여 복수로 받으면 여자의 후손도 복수가 된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히브리 성경에서
받았다. 그러므로 뱀의 후손도 단수로 취급함이 옳다(ibid p 53).

² 히브리원어 해석 구약 신학 by Walter Keiser p.53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기 때문에, 신구약 안에서 모형과 원형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구약은 하나의 성경으로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24 : 25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복음 24 :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 : 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말은 예를 들어 말하면, 모세의 글에서 속죄양은 신약의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부릅니다(요한복음 1 :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기 때문에, 신구약 안에서 모형과 원형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것은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짝짓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돌라에게서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가진 다섯 아우가, 그돌라의 다섯 아들을 뜻한다고 하며, 성경을 그 방향으로 해석해 갑니다. 그러면 다섯 아들을 가진 아브라함은 다섯 아우를 가진 부자의 모형입니까? 성경을 이런 스타일로 해석하는 것은 방향이탈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됩니다.

3.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함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 입증하고 가르치는데 그들의 모든 혼신을 다 바쳤습니다. 사도 시대때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충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행전 13 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을 공부해 보십시오(행 13).

3.1 행전 13 장에서 바울이 시 2 편과 16 편을 사용하여 메시아의 부활을 입증함

우리 먼저 행전 13 을 읽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13 :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도행전 13 :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도행전 13 :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3 : 35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33 절을 읽어 보면

사도행전 13 :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다음 시 둘째편 7 절을 읽어 보십시오.

시편 2 : 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 둘째 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서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연결됩니다.

이사야 9 :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다음에 35 절을 읽어 보면,

사도행전 13 : 35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시 16:10 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6 : 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메시아가 죽어 그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 : 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사도행전 13 : 37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행전 13 :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행전 13 :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성경으로 부활을 입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죄사함과 칭의를 확증합니다.

3.2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 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 :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 년전, 율법이 있기 약 500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벌써 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하질 않고,
자꾸 행위로 의를 얻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서 9 :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로마서 9 : 31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로마서 9 : 32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 : 33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 : 32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였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하도 불신앙 불순종을 하니까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예루살렘에 두셨는데 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공모하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유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인
천하에 무지막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반석인 예수님이 저들에게 거치는 돌이 된 것입니다.

<결론>

1. 복음은 구약부터 있었다.
2.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 즉 복음은 구약의 약속과 다른 것이 아니다.
3. 구약을 Holy Scripture 로써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ⁱ . Hebrew Word: זָרַע

Transliteration: zera^c

Phonetic Pronunciation: [zeh'-rah](#)

Root: from [<H2232>](#)

Cross Reference: TWOT - [582a](#)

Part of Speech: n m

Vine's Words: None

Usage Notes:

English Words used in KJV:

seed 221 ,
child 2, carnally + [<H7902>](#) 2 , carnally 1, fruitful 1
seedtime 1
sowing time 1 [Total Count: 229]

from [<H2232>](#) (zara`); *seed*; figurative *fruit, plant, sowing-time, posterity* :- × carnally, child, fruitful, seed (-time), sowing-time.